



유럽의 여섯 가지 지역화폐 실험 소개



2014.10.10 | 이수연_새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

CCIA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내에서 6개의 지역화폐 시범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화폐가 기존의 수익 중심 화폐와 경제에 매이지 않고 시간과 상품을 교환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며, 유로나 파운드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이 연결될 수 있어 공동체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있다.

지역화폐(Local Currency)는 일반적으로 법정화폐와 병행되며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말한다. 공동체화폐(Community Currency), 보완화폐(Complementary Currency), 전환/이행화폐(Transition Currency), 가치절감화폐(Depreciative Currency)와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¹⁾ 현재 세계 35개국에서 약 3000여 개의 지역화폐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²⁾

경제위기 때 관심을 모았던 지역화폐

지역화폐의 시작으로는 1832년 영국 런던에서 도입된 ‘노동증서’가 중요하게 이야기된다. 협동조합의 아버지로도 알려져 있는 로버트 오웬(Robert Owen)이 만든 화폐이다. 상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가치를 평균노동시간으로 환산하여 그만큼의 노동증서를 받고, 다른 참가자가 제공한 상품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결제수단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이후에도 다양한 지역화폐 사례들이 존재했는데, 주로 대공황, 세계대전 등 화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경제위기와 침체시기에 많이 등장하여 효력을 발휘했다.³⁾ 이러한 사례들은

1) 이수연, 2014,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 분석,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 Complementary Currency Resource Center(www.complementarycurrency.org)



1990년대 후반 레츠(LETS)나 타임달러(Time Dollar)와 같이 시간에 기반한 현대 지역 화폐 모델로 이어졌다.

그리고 최근 유럽에서 다시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다. 유럽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10년 재정위기를 연이어 겪으면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경제력이 다른 여러 국가들이 유로화라는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면서 통화정책 부재로 인한 어려움 또한 겪고 있다. 때문에 지역화폐를 비롯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최근 유럽 연합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지역화폐 실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역화폐에 대한 유럽연합의 관심

유럽연합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유럽의 기업, 연구자, 정치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가한 'SPREAD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Sustainable Lifestyles) 2050'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화폐를 정책 수단의 하나로 제시하였다.⁴⁾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삶의 방식이 환경을 파괴하는 방식이기에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2050년까지 유럽을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결과 △ 정치와 정부의 역할, △ 경제와 통화 시스템, △ 사회혁신, △ 개인들의 태도 변화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중요한 4가지 요인으로 꼽혔다.

그 중에서도 경제와 통화 시스템의 경우, △ 현재의 부채 기반 경제에서 공동체 기반 경제로 전환, △ 지역화폐를 촉진하고 은행시스템의 탈 중심화로 통화 시스템 재구축, △ 투자와 보조금 및 세제의 개편, △ 생태경제학이 주류가 되도록 교육 체계 변화, △ 생산과정에서 최대한 환경을 해치지 않고 생산하도록 기업의 생산 과정 변화 등을 개선 방향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지역화폐와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산업 개발에 집중하고, 2025년부터 2050까지는 지역화폐와 포괄적 경제 모델이 유럽 전역에서 합법화 되는 것을 시기별 목표로 삼았다.⁵⁾

이러한 장기적 정책 전망과 함께 CCIA(Community Currency In Action, 지역화폐 실험)라는 지역화폐 설계와 시행을 위한 관련 조직들의 연합체도 만들어졌다. CCIA 역

3) 자세한 내용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역통화 입문』(아베 요시히로 외, 2003, 아르케) 참조

4) 유럽연합은 이 프로젝트에 약 142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5) 영어 원문에서는 alternative currency, complementary currency 등의 단어가 사용되었으나 이것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지역화폐의 의미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지역화폐로 통일하여 해석하였다. SPREAD Sustainable Lifestyles 2050, 2012, European Policy Brief, (www.sustainable-lifestyles.eu)



시 유럽연합의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의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코인(Qoin), 스트로(STRO, Social Trade Organization), 신경경제재단(NEF, New Economic Fund)의 지역통화 전문기관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프랑스 낭트, 영국 런던 램베스의 지방정부, 벨기에와 영국 웨일스의 관련 기관들이 함께하고 있다.

CCIA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내에서 6개의 지역화폐 시범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화폐가 기존의 수익 중심 화폐와 경제에 매이지 않고 시간과 상품을 교환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며, 유로나 파운드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이 연결될 수 있어 공동체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있다.⁶⁾

유럽연합, CCIA를 통해 6개 지역화폐 시범사업 진행 중

CCIA가 추진하고 있는 6개 지역화폐 시범사업은 △ 프랑스 낭트의 소낭트(SoNantes), △ 네덜란드의 트레이드코인(TradeQoin), △ 영국 사우스웨일스의 스파이스 타임 크레딧(Spice Time Credits),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마키(Makkie), △ 벨기에 림부르흐의 E-포르토모네이(E-Portmonnee), △ 영국 런던의 브릭스톤 파운드(Brixton pound)이다. 현재 운영 중인 화폐도 있고, 아직 준비 중인 화폐도 있다. CCIA는 6개 시범사업 모두 2015년에는 실제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1. CCIA의 유럽 내 지역화폐 시범사업

지역화폐	지역	목적	방식
소낭트	프랑스 낭트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상호신용거래, 신용카드나 온라인을 통한 지불결제
트레이드코인	네덜란드	중소기업 간 거래 지원	상호신용거래, 기업간 거래만 가능
스파이스 타임 크레딧	영국 사우스웨일스	주민 참여 기반 공공서비스와 자원봉사 확대	시간 거래 품앗이
마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마카사스퀘어	주민들의 자원봉사와 품앗이 촉진	시간 거래 품앗이
E-포르토모네이	벨기에 림부르흐	친환경적 생활 방식 확산	포인트 적립 및 사용
브릭스톤 파운드	영국 런던 램버스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법정화폐와 교환, 종이화폐와 휴대폰 문자를 통한 지불결제

6) communitycurrenciesinaction.eu



6개 지역화폐 시범사업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1) 소낭트(SoNantes)⁷⁾



소낭트는 프랑스 낭트의 지역화폐로, 2015년 1월 운영 예정이며 아직 준비 단계이다. 낭트는 프랑스 남서쪽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였으며, 프랑스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이다. 거주인구는 30만 명이다. 당시 낭트시 시장이었으며 현재는 프랑스 총리인 장 마르크 애로(Jeon Marc Ayrault)의 주도하에 2008년부터 구상되기 시작했다. 2012년 초 ‘낭트의 화폐(A currency in Nantes)’ 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공식화되었다. 지역 대학의 전문가와 학생, 노동자, 사업자, 시민 대표들이 모여 수많은 워크숍과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고 해외 관련 단체들과의 교류를 지속했다. 2013년 CCIA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소낭트는 유로화의 보완 화폐로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변동성을 줄이고, 지역의 소상공인⁸⁾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업을 제외한 지역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 가맹점과 소비자는 시립 낭트은행(Creidt Municipal de Nantes)⁹⁾에서 계좌를 만들고 유로화를 같은 금액의 소낭트로 교환할 수 있다. 즉, 1소낭트는 1유로화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 교환한 소낭트로 직접 지불결제를 하여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으며, 가맹점간 또는 가맹점과 소비자 간에 화폐를 거치지 않고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방식의 상호신용¹⁰⁾도 가능하다.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결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 결제가 가능하다. 종이화폐는 사용하지 않는다.

7) www.sonantes.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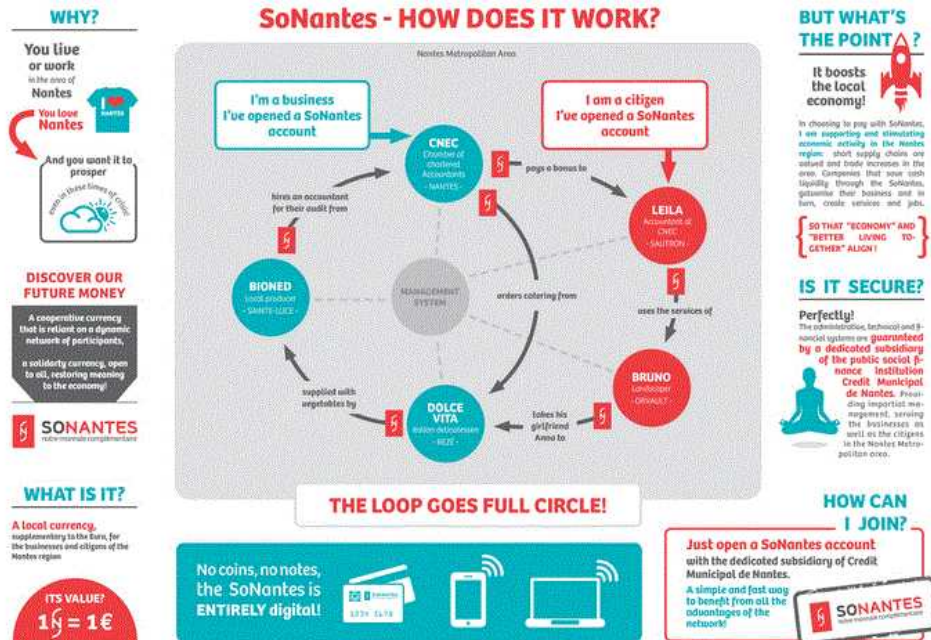
8) 낭트에는 2만 6천여 개의 소상공인과 기업이 존재한다.

9) 낭트 시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서민 용자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한다.

10) 상호신용 방식에 대해서는 뒷쪽에 나오는 트레이드코인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그림 1. 소낭트에 대한 안내가 담긴 홍보물(www.sonantes.fr)



2) 트레이드코인(TradeQoin)¹¹⁾



트레이드코인은 네덜란드 전역에서 사용되는 지역화폐로, 2014년 3월부터 운영되었다. 중소기업 간 거래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간 상호신용 통화이다.

참여 기업들은 트레이드코인 웹사이트에 가입 신청을 하고 계좌를 부여받는다. 계좌는 처음에 0으로 시작하며, 다른 참여 기업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트레이드코인을 받으면 그만큼이 계좌에 입금된다. 이후 자신의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 안에서 다른 참여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1트레이드코인은 1유로화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3번의 거래를 달성하면 트레이드코인의 정식 회원이 될 수 있다. 정식 회원이 되면 매달 회비 25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기업들이 유로화로 거래할 경우 거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하지만, 트레이드코인을 통해 거래하면 이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기업들의

11) tradeqoin.com



가입을 유도하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개별 소비자는 가입할 수 없으며, 풀타임 근로자가 250명 이하 연매출 5천만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일종의 중소기업 네트워크로 각 지역별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교류하도록 하며, 다른 지역의 기업과도 거래가 가능하다. 트레이드코인 네덜란드(TradeQoin Netherlands)라는 전국적 협동조합이 존재하여 거래할 대상을 찾지 못한 기업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종이화폐나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으며, 오로지 전자결제 기록만으로 운영된다.

그림 2. 트레이드코인 홍보물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면
트레이드코인을 이용하라는 내용(tradeqoin.com)

3) 스파이스 타임 크레딧(Spice Time Credits)¹²⁾



12) www.justaddspice.org



스파이스 타임 크레딧은 영국의 사우스웨일스에서 사용되는 지역화폐로, 10년전부터 운영되던 것을 CCIA의 지원을 받아 확장 발전시키고 있다. 스파이스는 타임 크레딧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지역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나 자원봉사를 늘리고, 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공동체를 건설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높이며, 빈곤을 줄이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타임 달러나 타임 बैं킹과 같은 형태이다. 지역의 공공기관과 커뮤니티 등에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시하면 시민들은 이에 참여하여 ‘타임 인(Time In)’을 할 수 있다. 즉, 일한 시간에 해당하는 타임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모은 타임 크레딧은 공공기관이 지역의 가맹점에서 ‘타임 아웃(Time Out)’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센터나 극장 이용이 가능하다. 꼭 공공기관이나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이웃 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 애완견 돌봐주기 등의 서비스를 주고받는 것이다. 또한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나 시설을 확충하는데 기부할 수도 있다. 1시간에 해당하는 노동의 가치가 1타임 크레딧이다.

온라인 타임뱅크 시스템을 이용하여 웹사이트에서 결제하고 기록을 남길 수 있으며, 종이화폐로 발행하여 결제할 수 있다.

그림 3. 스파이스 타임 크레딧의 종이화폐 1타임 크레딧



※ www.justaddspice.org 참고

4) 마키(Makkie)¹³⁾

makkie

13) www.makkie.cc



마키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동부에 위치한 마카사스퀘어에서 사용되는 지역화폐로, 2012년부터 운영이 시작되었다. 마카사스퀘어는 암스테르담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높은 실업률과 범죄율, 빈곤율을 가진 곳이다. 오래 전부터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지역화폐 도입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마을에 일거리나 사람은 있지만 돈이 없다는 문제로 이들이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마키는 △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동네 만들기, △ 사회적 소외 해소, △ 자아 실현과 자기 개발, △ 청년층 지원, △ 지역기업 강화 및 주민과 지역기업 간 연결을 목표로 내세웠다.

마키를 이용하고 싶으면 우선 웹사이트 등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한다. 이후 마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고 노인이나 장애인의 가사를 돕거나 공공장소를 청소하는 등의 일을 한다. 그러면 일한 시간에 따라 마키가 지급된다. 1시간 일한 가치가 1마키에 해당한다. 지급된 마키를 통해 물건을 살 때 할인을 받을 수도 있고, 영화관이나 수영장의 입장권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마키는 지역봉사활동과 주민 간의 품앗이를 돕는 매개체이다. 마키는 종이화폐로 발행된다.

그림4. 마키의 종이화폐 1마키와 1/2마키



www.makkie.cc 참고



5. 마키 웹사이트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글

Ophalen van zoon [Lees minder](#)
Mijn zoon gaat naar Speciaal Onderwijs in Noord. Ik zoek iemand die hem op een paar vaste dagen kan ophalen. De school is minder dan 5 minuten fietsen vanaf de pont Distelweg en NDSM werf. Vanaf de Tasmanstraat wonen wij minder dan 10 minuten fietsen verwijderd van de pont. Mijn zoon is 10 jaar oud en kan heel goed fietsen.

Wanneer: 1 okt, 2014
Makkes: 3
Categorie: Vervoer
Trefwoorden: kind, school, ophalen, fiets
Openbaarheid: publiek

Deze hulpvraag is beantwoord!

며칠간 10살 아들의 하룻길에 동행해 줄 사람을 찾고 있으며 그 보상으로 3마키를 제안하고 있는 내용
www.makkie.cc 참고

5) E-포르토포모네이(E-Portmonnee)¹⁴⁾

limburg.net

E-PORTEMONNEE

E-포르토포모네이¹⁵⁾는 벨기에 림부르흐에서 사용되는 지역화폐로, 2005년부터 운영되었다. 림부르흐는 행정구역상 주(州)로 인구는 85만 명이며, 그 안에 40여 개의 자치구를 가지고 있다.

E-포르토포모네이를 운영하고 있는 림부르흐닷넷(www.limburg.net)은 림부르흐 지역의 폐기물 처리 기업인데,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기업이다. E-포르토포모네이 역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삶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졌다.

E-포르토포모네이도 앞서 살펴본 마키나 스파이스 타임 크레딧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다만 마키나 스파이스 타임 크레딧이 지역과 이웃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모두 포괄한다면, E-포르토포모네이는 친환경적 활동으로 한정된다. 우선 주정부나 자치구 정부에 가서 아이디 카드를 등록하고 계좌를 만든다. 그 후 지역 중고매장에 물건을 기부하거나 집안에서 쓰는 에너지를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친환경 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로는 대중교통이나 체육문화시설 이용, 그 외 친환경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포인트의 입출은 자신의 전자계좌에 기록이 된다. 종이화폐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은 없고 오로지 전자계좌의 기록으로만 거래를 한다.

14) www.e-portemonnee.be

15) 네덜란드어로 포르토포모네이는 지갑이라는 뜻이다. E-포르토포모네이는 전자지갑을 의미한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현재 림부르흐에 있는 10개 자치구가 E-포르토모네이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 구별로 사용인구 비율은 최소 1%에서 최대 16%에 이른다. 아이디 카드만 만들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가구 단위로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여하기 쉽다. 이를 이용하여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6. E-포르토모네이 웹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얻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음

VERDIENACTIES: WAARMEE KAN U ZOAL PUNTEN VERDIENEN?
DEZE VERDIENACTIES ZIJN NIET BESCHIKBAAR IN ALLE GEMEENTES.

BEKIJK ALLE VERDIENACTIES

Tuin AANKOOP VAN EEN MULCHMAAIER Het gemeentebestuur wenst het ter plaatse (her)gebruiken van groenafval te stimuleren. 1 000 PUNTEN	Tuin COMPOSTMEESTERS DIE INFO GEVEN TIJDENS DEMODAGEN Indien je als compostmeester info geeft aan bezoekers tijdens een demodag, word je hiervoor beloond met 250 punten per demodag. 250 PUNTEN	Huis AANKOOP ISOLATIEMATERIAAL UIT HERNIEUWBARE GRONDSTOFFEN Hernieuwbare grondstoffen zijn grondstoffen die op aarde gekweekt kunnen worden. Mits goed beheer zijn deze grondstoffen onuitputbaar. Volgende isolatiematerialen komen in aanmerking: 5 PUNTEN	Huis AANKOOP VAN HERBRUIKBARE LUIERS De wasbare luier bestaat in allerlei vormen, kleuren en maten. 5 000 PUNTEN
---	---	--	---

왼쪽부터 천연퇴비 제조를 돕는 잔디깎기 구매시 1000포인트, 천연퇴비 제조시 250포인트, 주택에 재생가능 원자재 구매시 5포인트, 재생가능 기저귀 구매시 5000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내용 (www.e-portemonnee.be)

6) 브릭스톤 파운드(Brixton Pound)¹⁶⁾



브릭스톤 파운드는 영국 런던의 자치구 중 하나인 램버스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9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2014년 CCIA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에 있어 지원을 받고 있다.

브릭스톤 파운드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고, 파운드와 같은 금액의 브릭스톤 파운드를 교환하여 사용한다. 즉, 1브릭스톤 파운드는 1파운드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계좌에 들어온 브릭스톤 파운드는 종이화폐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휴대폰 문자 결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 종이화폐의 경우 1, 5, 10, 20브릭스톤 파운드로 4가지 중

16) brixtonpound.org



류가 있다. 휴대폰 문자 결제(Pay-by-text)란 문자로 자신의 계좌에 지정된 번호와 구매처, 구매금액을 적어 브릭스톤 파운드 은행에 보내면 결제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2014년 현재 270여 개의 가맹점이 가입되어 있으며, 사용자수는 1000여 명에 이른다. 브릭스톤 파운드를 이용할 경우 가맹점에 따라 10~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램버스 지자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브릭스톤 파운드로 월급을 지급하는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램버스 지자체의 직원들은 월급 중 일부를 선택하여 브릭스톤 파운드로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종이화폐로 발행되지는 않고 전자계좌를 통한 이체만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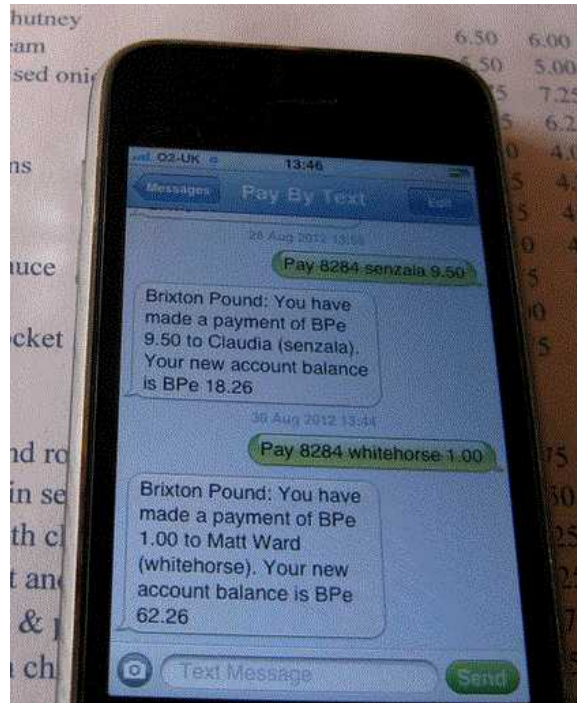
그림 7. 브릭스톤 파운드의 종이화폐



brixtonpound.org 참고



8. 브릭스톤 파운드의 휴대폰 문자 결제 장면



이용자 8284가 senzala에서 9.50브릭스톤 파운드를 whitehorse에서
1.00브릭스톤 파운드를 결제 요청했고, 이것이 처리된 화면
(brixtonpound.org) 참고

이상 CCIA에서 추진 중인 유럽의 여섯 가지 지역화폐 실험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각 지역마다 상황에 맞는 목적을 가지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다양한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실험이 완료될 때까지 또 어떠한 변화와 발전이 있을지를 기대하며 CCIA와 여섯 가지 지역화폐들을 지켜보는 일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이러한 선례들이 많이 전파되어 국내에서도 다양한 지역화폐 실험이 시도되고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



2014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4년 10월 10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세계경제	1/15	지뢰밭 속 순항?	정태인
한국경제①	1/16	스스로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정태인
한국경제②	1/17	747에서 474로 갈아탄 근해노믹스	여경훈
복지①	1/20	박근혜 정부식 보건의로, 민영화 폭탄	이은경
돌봄	1/21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 이 되려면	최정은
주거	1/24	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어찌 하오리까	강세진
노동	1/28	사라진 공약,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김수현
복지②	1/29	노인, 대학생, 취약계층 복지 정책 실종	이은경
노동	4/14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에 답 있다.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노동	4/17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는 무엇인가?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노동	4/21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 제안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주거	5/12	노인복지의 주요 이슈, 주거	강세진
경제	5/19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리고 한국 경제 ①	정태인
정치	5/22	민주주의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이은경
경제	5/26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리고 한국 경제 ②	정태인
노동	6/2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이은경
경제	6/5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①	강세진
경제	6/16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②	강세진
복지	6/17	박근혜 2기 개각, 복지축소와 민영화의 신호탄?	이은경
경제	6/19	대기업 지원정책으로 전락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이상호
의료	6/23	박근혜 정부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이은경
의료	6/26	이제 그런 핑계 대지마	이은경
복지	7/10	돌봄서비스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제언	최정은
노동	7/14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질적 개선 정책도 추진되어야	김수현
경제	7/29	소득 불평등 지표 개선, 앞으로도 계속 될까?	김수현
사회적경제	8/4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1) : 사업이 번창해도 실패한다	이수연
사회적경제	8/5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2) :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다	이수연
사회적경제	8/8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3): 무리한 확장과 무관심이 발목을 잡다	이수연
경제	8/22	여전히 심각한 빈곤문제, 더욱 악화된 중고령층 빈곤	김수현
주거	8/25	마을계획 : 주민들의 일상적 사고와 활동의 순환과정	강세진
경제	9/2	MB정부보다 더 강화된 풀뿌리 관공육성정책 파괴	정란수
보건복지	9/5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틀렸다	이은경
보건복지	9/11	9시 등고, 과학적 근거로 접근해보자	이은경
고용	9/12	2014년 8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의료	9/15	민영화를 민영화로 돌려막는 박근혜 정부	이은경
주거	9/16	주택구매 수요계층 전환기, 값이 떨어져야 시장이 살아난다	강세진
주거	9/22	80년대 이후 주택가격추세 분석	강세진
사회적경제	9/25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 분석	이수연
보건복지	9/26	표류하는 공무원 연금	이은경
노동	9/30	증가추세의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질적 측면 제고해야	김수현
사회적경제	10/10	유럽의 여섯 가지 지역화폐 실험 소개	이수연